

어르신 종합복지센터로...경로당의 변신

광주시 활성화 추진계획
내부공간 리모델링 지원
운영프로그램 대폭 확대
공기청정기 보급도 속도

광주시가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로당 활성화에 나선다. 광주시는 '어르신들의 쉼터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를 목표로 한 '2019년도 경로당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추진 계획안에는 ▲기존 경로당을 어르신 종합복지센터로 개편 ▲경로당 운영프로그램 대폭 확대 ▲경로당 운영비 및 기

능보강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기준 광주지역 경로당은 1315곳으로 회원수는 4만6173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어르신의 25%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로당에는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를 비롯해 체육회, 안마사협회, 노인복지관, 건강보험공단 등이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경로당별로는 평균 주 1회도 미치지 못해 대폭적인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단순 사랑방 기능에 머물고 있는 경로당을 다양한 여가·건강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어르신 종합복지센터로 개편한다.

우선 매년 일정 규모(100㎡) 이상 경로당 5곳을 공모해 내부공간 리모델링을 지

원하고,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와 연계해 여가·건강관리·교육 등 여가프로그램을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독거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로당은 취사·목욕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한다.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와 함께 경로당별 수요자 욕구조사를 실시해 수요 및 특성에 맞는 맞춤형 특화프로그램을 보급한다.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서도 요가와 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빛고를 50+일자리사업과 연계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사업단 운영을 통해 중장년층 강사를 경로당에 파견하고 치매 예방플래너, 수지침, 실버댄스, 스마트폰 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이밖에 한국시설공단과 함께 노후 경로당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경로당에 설치된 노후 냉방기는 혹서기 전에 전부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하기로 했다.

올해 41억4500만원의 경로당 냉·난방비 등 운영비도 자치구를 통해 지원한다.

미세먼지에 민감한 어르신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도 조속히 추진한다.

지난해 10월 교부한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비 22억7200만원을 집행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 독려할 방침이다.

류미수 고령사회정책과장은 "경로당이 어르신 종합복지센터로 기능하도록 시설 개선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하면 과태료 부과 광주시 계도기간 만료...내달 1일부터 집중 단속

앞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을 방해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일반차량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해 9월21일부터 2019년 3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단속 대상은 전기차 및 외부 전기로 충전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와 이로 인한 전기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한 경우 10만원 ▲급속충전기에서 충전 후 1시간이 경과한 경우 10만원 ▲충전구역 내 또는

진입로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한 경우 10만원 ▲충전 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20만원 ▲충전기를 고의로 훼손한 경우 20만원 등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관련법에서는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은 일반차량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3월 기준 광주지역 충전시설은 총 1425개로, 이중 공용충전기는 367개(원속 255, 급속 112)가 운영되고 있다.

광주시는 향후 민간 편의시설 충전시설 설치 등 지속적인 충전인프라 시설 확충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시소방본부 5월까지
무등산 등 주요 등산로
'등산목 안전지킴이' 운영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다음달부터 2개월 동안 봄철 등산객이 많이 찾는 무등산 국립공원 등 주요 등산로에서 '등산목 안전지킴이' 활동을 펼친다고 28일 밝혔다.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된 '등산목 안전지킴이'는 주말과 공휴일에 등산객의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인명구조 뿐만 아니라 산행 중 길을 잃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 설치한 산악위치 표시판 17개와 간이 구조구급함 29개를 점검한다. 또한, 유관기관과 함께 산악사고 대비 인명구조훈련과 안전 캠페인 등도 벌인다.

특히 무등산국립공원에서는 시민들로 구성된 119시민산악봉사대원 31명이 인명구조, 안전 산행 지도, 산림 정화활동을 펼친다.

황기석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등산 전에 철저한 준비운동과 자신의 몸에 맞는 산행법을 선택해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등산객 안전지킴이 운영으로 소방안전서비스 제공과 산악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 간 광주지역 산악사고 구조 건수는 ▲2016년 284건 ▲2017년 336건 ▲2018년 277건이었다. 이 가운데 지난해에만 288명이 실족, 조난 등으로 119의 도움을 받았다. /최권일 기자 cki@



광주에 모인 세계 기자들 28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세계기자대회(World Journalists Conference)'에 참석한 이용섭 광주시장과 정규성 한국기자협회장, 김효성 광주전남기자협회장이 각국 기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 구직 청년들 위한 '잡카페 1호점' 문 열어

서구 상무지구... 무료 이용
일자리 상담·취업 정보 제공

취업 전선에서 뛰고 있는 청년들이 다양한 취업 정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광주에 마련됐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구직 청년들에게 일자리 상담과 다양한 취업 정보,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토닥토닥 청년일자리잡(Job)카페 1호점'이 이날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서광주농협 운전점 2층에 문을 열었다.

잡카페는 기존 일자리(취업)센터와는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자리에 관한

정보 수집과 다양한 취업·창업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곳에는 상담실, 회의실, 모의 면접실, 미니 카페, 도서공간 등을 갖추고 있고,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회의실과 스터디룸 등은 예약을 통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지원프로그램도 원스톱으로 운영된다. 면접 준비 청년들에게는 무료로 정장을 대여해주고, 이력서용 무료 사진촬영도 가능하다.

면접 정장 대여는 예약접수 뒤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여를 받을 수 있고, 3박4일까

지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컨설팅, 모의면접 등 취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창업기초교육, 성공 창업가 멘토링 등 창업아카데미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에서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은 "잡카페가 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취업준비 플랫폼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닥토닥 청년일자리잡(Job)카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관련 문의는 (062-372-5990-4)로 하면 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소외계층 2400세대 주택 화재보험 가입 지원

광주시 소방본부는 올해 화재에 취약한 소외계층 2400세대를 대상으로 주택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입 지원 대상은 각 자치구 추천을 받아 선정된 기초생활 수급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우 등이다. 보장기간은 3월부터 내년 3월까지로 1년이며, 보험료는 가구당 5000원~2만원이다. 가입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5000만원 이내에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 3년 간 보험에 가입한 6542세대 중 7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1억원의

보상받았다.

'주택화재보험 가입 지원' 사업은 2010년 홀몸노인 등 소외계층이 생활하는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삶의 터전을 잃는 것은 물론 피해복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시행됐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또 화재피해 주민 지원센터를 운영해 생필품 지원, 피해 복구 및 구호안내, 기초소방시설 보급, 소방안전점검 등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남구, 모바일 헬스케어 참가자 150명 모집

광주시 남구는 "건강 위험요인을 보유한 성인들에게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 헬스케어 프로그램에 함께 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바일 헬스케어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체크하면서 건강 위험요인을 없애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혈압과 혈당, 복부둘레,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등 건강을 해치는 위험요인을 보유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심박수와 운동량, 칼로리 소모량 등을 체크하는 손목용 스마트 밴드가 각 개인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걷기 운동 등을 통해 자신의 건강 변화를 스마트폰으로 주기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운동 처방사 등으로 구성된 모바일 헬스케어 운영팀 관계자들로부터 각종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주 1회 건강정보 콘텐트를 비롯해 월 1회 분야별 자가 관리 평가, 상담 등 전문적인 서비스도 제공된다.

참가자 모집은 오는 4월 12일까지이며, 모집 인원은 건강 위험요인을 보유한 성인 150명이다.

남구는 신청서 접수를 끝낸 뒤 혈압과 허리둘레,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등 사전 검사를 실시한 뒤 최종 참가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모바일 헬스케어 프로그램은 오는 5월부터 시작돼 11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싸게 팝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15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2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매매 - 평당 25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